

전업양돈장에도 기업경영개념 도입할 때



하서현 교수
(강원대학교 축산대학)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대내적으로 생산구조의 전근대성으로 경쟁력이 비교적 저위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수입개방이 강요되고 있는 등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UR협상에 따라 가격지지 등 각종 보조금의 단계적 삭감 추이, 수입상품의 관세화와 이의 점진적인 축소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수입축산물과의 자유경쟁에 따른 국내 돈육의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상당한 생산감축이 우려되어 농가소득의 감소 및 농촌경제의 악화가 초래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경제정책의 수립시 축산업에 관한 인식부족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데서 기인되는데, 이는 우리의 농정이 1차 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가격지지, 농외 소득원의 개발 및 농가부담의 경감 등을 통한 일시적 농가소득의 증대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축산업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및 인력 육성에 의한 소극적인 추진, 법제도 개선의 미비, 자금의 분산지원 등도 경쟁력 제고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은 구조적 제약에 의하여 겸업정책 시도로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없었던 한계성 등도 있다. 이와 같은 지난날의 반성과 함께 새롭게 전개되는 지방화와 개방화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생산구조의 조정, 기술개발, 자본조성, 정책적 의지 표현 및 생산자의 자세정립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무한경쟁시대에 양돈업의 새로운 방향설정과 경영개선의 주역으로서 경영주의 새로운 자세정립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상업농업하의 양돈업의 경우 아무리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하나의 경영체인 만큼, 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더욱이 오늘날의 양돈업은 기업의 성격을 도외시하고는 경영의 목적인 순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기본적 성격과 조직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기업가적인 자세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업이란 이윤추구가 그 목적으로 경영에서 순수익의 개념과 같다. 이윤은 기업활동의 근본

66

오늘날의
양돈업은 기업의 성격을
도외시하고는 경영의 목적인
순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기본적 성격과 조직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기업가적인
자세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99

적인 유인조건이고, 이윤에 의하여 기업이 유지, 성장할 수가 있다. 또한 기업의 이윤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사회복지 향상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첫째, 사회 전체의 변화와 기업환경의 변화추세를 통찰하고 그 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 일이다. 둘째는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끝으로 전업양돈농장의 경쟁력 제고의 길은 경영주가 과거와 같은 노동제공자로서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기업가적인 자세로서의 자세정립이다. 즉 돈육의 생산을 위한 자원의 구입, 생산물의 처분, 판매까지의 의사결정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첫째, 팔려고 생산을 하지 말고 팔리는 상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 생산을 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상품의 생산방법중 생산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채

택하여야 한다. 셋째는 상품의 생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산량은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을 생산하여야 한다. 넷째는 상품 생산에 투입될 생산요소의 구입은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때 하고, 상품의 판매는 성수기를 피하여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상품 생산에 투입될 생산요소나 상품의 구매처, 판매처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과 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 전업양돈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기업의 개념이 도입되어 경영주는 기업가적 자세로서 경영에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때 기업의 목적인 이윤(순이익)의 극대 추구를 가능케 할 것으로 여겨진다. 

